달러화 강세 전환… 당분간 원화 약세

골드만삭스,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달러 강세 부추겨… 한은 금리인하 기대감 등 원화값 떨어트려

사막에 희망의 나무를 심자 10일(현지시간) 대한항공 임직원, 몽골 주민들이 몽골 올란바토르 바가노르 사막지역에서 포플러, 비술나무, 차차르간 등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당분간 원화 약세(환율 상승)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70.0원에 출발한 뒤 오전 중 1168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일(1172.6원)보다 환율 상승폭이 제한되며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지난 3일 종가(1140.2원)와 비교하면 4거래일 만에 달러당 원화값이 30원 가량 떨어진 셈이다.

최근 원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배경에는 달러화가 '약세→강세'로 전환된 영향이 크다. 일각에선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미 달러화가 바닥을 치고, 앞으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투자보고서를 통해 "4월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는데도 달러화가 반등한 것은 더이상 달러화가 추락할 수 없다는 시장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며 달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은 16만건으로 7개월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달러화는 지난 한 주간 오히려 1% 반등하며 6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는 요인으로는 미국의 6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2~3차례 금리가 인상되는게 합리적"이라고 말했고,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올해 2차례 금리인상은 합리적"이라며 금리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달러당 원화값은 당분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 이후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우려가 걷힌데다 한은의 금리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계속되는 점도 원화값을 떨어트리는 요인이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상승을 주도한 '강달러' 압력이 지속되고, 이번주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인하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KR선물 연구원은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조합이 이어지면서 환율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내다봤고, 서대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둔화 위험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연말까지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연말 원·달러 환율이 1240원대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의 상승폭은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달러화 강세의 지속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환율 상승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상단이 제한될 것"이라며 "미 수출입물가, 소매판매 등 아직 발표되지 않은 지표들이 미 달러화 강세를 지지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알아두면 유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

휴면 금융재산 · 미수령 주식 · 금융상품 한눈에 등

찾지 않은 '금융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용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서비스를 포함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 제1편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11일 안내했다.

'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는 은행, 보험사, 우체국,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있는 본인 명의의 모든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현황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연합회(www.sleepmoney.or.kr), 생보협회(www.klia.or.kr), 손보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된다.

미수령 주식 현황은 유가증권 관리업무 대행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및 KEB하나은행은 주식 실물 보유 주주가 무상증자, 배당 및 상속 사실을 인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주식·배당금을 보관한다.

휴면성 신탁 및 증권계좌 현황은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증권사별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사이트 링크를 통해 각 증권사의 조회화면으로 접속하면 된다.

'금융상품 한눈에'(http://finlife.fss.or.kr)는 하루 평균 7000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163개 금융회사에서 판매 중인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보험, 펀드 등의 금리, 수익률, 보험료 등을 비교할 수 있다.

'계좌이동서비스'와 '금융주소 한번에', '통합연금포털' 등도 대표적인 원스톱 금융서비스다.

/안진수 기자

'내집연금 3종세트' 가입 증가세 지속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후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된 뒤 10거래일(10일까지) 동안 주택연금 일평균 가입신청 건수는 87.4건이다.

이는 지난해 일평균 가입신청 건수인 29.3건의 3배 수준이다.

상담건수는 증가폭은 더 크다.

출시 후 예약신청과 방문을 통해 일평균 497.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지난해 일평균 상담 62.6건 보다 8배 늘었다.

특히 예약상담 신청건수는 일평균 417건에 달해 전년 35.1건 대비 12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상품별 가입신청 건수를 보면 내집연금 1종(주택담보대출 상환용)에 99건, 2종(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에 1024건, 3종(우대형 주택연금)에 254건이 몰렸다.

10일거래 동안 총 4979건의 예약상담 신청, 이중 주택금융공사 콜센터를 통한 상담이 38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평균 386.7건이다. /안진수 기자

사물인터넷(IoT) 보안 시스템 시장 뜬다

전 세계 지출 전년대비 23.7% 증가 전망… 삼성전자 '녹스' 등 각종 솔루션 선보여

전 세계적으로 사물인터넷(IoT)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보안 서비스 산업 역시 각광받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IT 자문기관 가트너는 2016년 전세계 사물인터넷(IoT) 보안 지출 규모가 전년대비 23.7% 증가한 3억4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사물인터넷(IoT)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이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기술인 만큼 철저한 보안이 필수적으로 뒤따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관련 업체들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주자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보안 솔루션 '녹스(KNOX)'를 개발해 각종 IoT 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녹스'의 특징은 하나의 스마트 기기에서 암호화된 '컨테이너'라는 별도 공간 안에 업무용 데이터를 개인용 데이터와 분리, 관리할 수 있어 철저한 보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녹스는 최근 가트너의 등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부여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개방형 데이터 교환 플랫폼 '삼성 아틱 클라우드'도 선보였다.

클라우드 보안 전문 기업들도 각종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시스코시스템즈는 산업군에 대한 보안 솔루션에 초점을 맞췄다. 4대 핵심 산업군인 제조, 공공, 에너지, 교통 분야의 맞춤형 디지털 솔루션 아키텍처와 IoT 보안 솔루션을 공개한 바 있다.

정책 실행력과 위협 방어능력을 강화한 ISA-3000과 포그 데이터 서비스 보안 솔루션으로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개발했다. 라우터와 스위치상에서 보안정책을 감지하고 실행하며 비디오 감시 기능으로 첨단 보안 분석을 제공하고 물리적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등 IoT 환경에 맞는 물리적 보안을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라클도 최근 블루코트와 협업해 보안솔루션을 구축했다. 통합 솔루션으로 제공되는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Oracle Sales Cloud)'는 금융 등 보안이 중요한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퀄컴, 인텔, 인피니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의 기업들도 올해 MWC에서 IoT 관련 보안솔루션을 선보인 바 있다. /안진수 기자

보험설계사까지 가담한 유사수신 '주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을 가로채는 유사수신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업체는 137곳으로 이 중 16곳은 금융업을 사칭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을 이용해 소액투자를 유도하고, 미취업자 및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밴드(band) 및 블로그(blog) 등 폐쇄 커뮤니티를 통한 다단계 방식을 병행했다.

최근에는 일부 보험업계 관련 종사자들이 금융전문가를 자처하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A사는 재무설계전문가, 금융투자전문가, 자산관리전문가를 자칭하며 뉴질랜드 및 호주의 FX마진거래와 함께 기술산업에 투자한다고 주장하며 자금을 모집했다.

B사는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든다면서 토탈금융서비스 '금융투자 재테크'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했다.

C사는 선물옵션에 투자해 큰 수익을 얻는다며 투자금의 10~12%의 모집수당 지급 조건으로 현직 보험설계사를 모집책으로 고용했다. /안진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